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전면 도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오전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 10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민형배 시장이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시·군에 제안했다. 정부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특별시 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3·4면

민 시장은 8일 오전 광주청사에서 열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제안한다”며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된 곳뿐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전남광주특별시장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가운데 전남광주에서는 곡성·신안 등 4곳이 참여하고 있다. 민 시장은 인구소멸위험지역 16곳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12곳 안팎에 대해서도 특별시와 해당 군이 재원을 분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특별시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의 기본소득 사업 국비 부담 비율이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머지 50%를 특별시와 기초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는 형태다.

민 시장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군에 제안하고 있다”며 해당 시·군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통합 인센티브 활용 가능성도 열어줬다. 민 시장은 필요할 경우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일부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지역 주도 성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교통·의료·복지·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연결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도 내년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개통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공정을 매일 공개하는 등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 공평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며 “사업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 이후 공식사회가 안고 있는 인사 문제도 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특별법에 규정된 ‘종전 근무지 보장’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시는 출범 이후 광주·전남의 조직과 제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첫 조직개편을 통해 광주청사와 전남청사, 동부청사의 균형 운영체계를 마련했고 행정정보시스템과 재정·

회계 체계도 통합했다. 조례 정비와 공공기관 통합도 진행 중이다.

출범 100일 동안 주요 현안에서도 진전이 이어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8월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특별시는 무안 지역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산업 기반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2000년 첫 양산을 목표로 국가 산단 조성과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애플 등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시설뿐 아니라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과제도 남아 있다.

국립의대 설립은 후보대학 선정과 정부 추천 절차를 거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특별시는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능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 성과도 제시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국비 13조9천9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8천205억원, 6.3% 증가했으며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5조원도 반영됐다.

민 시장은 지난 100일을 통합의 기반을 마련한 기간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통합은 옳은 선택이었다”며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320만 시민 모두가 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수희 기자

알림

바리톤 김동규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24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가곡·월드뮤직 등 다양한 레퍼토리 선봬

가을이면 영감처럼 떠오르는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의 주인공 바리톤 김동규가 10월, 광주를 찾는다.

광주매일신문은 오는 10월24일(토)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바리톤 김동규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가곡과 클래식은 물론 월드뮤직, 영화 OST, 뮤지컬 넘버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집니다. ‘Il Mondo’, ‘봄치녀’, ‘그리움’, ‘Stand by Me’, ‘Bella Ciao’ 등 귀에 익은 명곡들이 김동규 특유의 깊고 따뜻한 음색으로 펼쳐지며, 무대의 대미는 그의 대표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장식합니다.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흥규, 소프라노 박



현진이 함께 무대에 오르고, 피아노·일렉트릭·드럼·베이스로 구성된 DK앙상블이 풍성한 선율을 더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 독자 여러분께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10월24일(토) 오후 7시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출연: 바리톤 김동규,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흥규, 소프라노 박현진, DK앙상블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예매: 예스24(9월15일 티켓 오픈)

▲문의: 광주매일신문기획사업국 062-650-2078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

특조법 이달 발의...농지은행 역할 확대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법에 포함될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자·영농 관련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맹행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토지 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증액에 국회와 협의해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고, 현재 진흥지역 농지 중심인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18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접수마감

10.14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인회 접수 인정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장정불요)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빌딩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수 4점 이내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접수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도착분
심사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11시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다목적실) 예정
심사별표 2026년 10월 22일(목)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광주시협 홈페이지 http://www.kjphoto.or.kr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예정) http://www.kjdaily.com
사상일시 2026년 11월 11일(수) 오후 2시(예정)
사상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예정)/광주매일신문 본사

사상 내역

-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시상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50만원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특별(학생) 부문
 - 대상(1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청 교육감 상장 및 메달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시상 상장 및 메달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메달
 - 특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패

*초대작가: 합산 15점 이상 인제(대상 6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 4점, 입선 2점)는 본 사진대전 초대작가제로 추대한다.
작품반출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요함)

기타 사항

-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작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은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o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야 함.
- 초대작가 작품 e-mail 제출 (cjkgang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재요망

THE 18TH KJ DAILY PHOTO EXHIBITION